



## 21C가 필요로 하는 인물 '아름다운 리더'



김 승 태  
안양대학교 총장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뉴밀레니엄 시대의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화와 혼돈상태 속에서 개인 및 사회의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대인 21세기가 몇 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국내외 정세를 살펴볼 때,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대립,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간의 대립, 북한 핵문제와 같은 문화적·종교적·정치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가경제는 불황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갈등은 그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사회와 세계가 이 어렵기만한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물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계에서 21세기 한국사회, 더 나아가 세계가 갈망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어떤 학자는 19세기가 진리에 관심을 두었던 '진'의 세기였다면, 20세기는 정의·인권·평등의 문제에 열정을 쏟았던 '선'의 세기이며, 21세기는 그 '진'과 '선'의 갈등과 투쟁을 넘어 그것들을 감싸고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미'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21세기 문명 전환의 핵심 패러다임이 바로 '아름다움'인 것이다. 다시 말해,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가슴'으로 할 때, 진리는 차가운 논리나 공허한 말장난이 아닌 살아 있는 진리가 되고, 그 실천도 맹목적인 자기희생이나 위선이 아닌 진정한 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대학이 육성하여야 하는 참다운 인물은 어떠한 모습인가? 뉴밀레니엄의 갈등과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21세기

---

형 인재는 바로 '가슴이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 라고 생각한다. 그 열정은 자기 자신과 우리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화합을 유도해 내기에 가슴이 뜨거운 열정이다. 바로 그 열정의 소유자를 '아름다운 리더' 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화합과 화평을 유도하는 아름다운 리더는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첫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화합을 유도할 수 없으며, 화평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헌신적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통해야만 화합의 밑거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섬김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섬김이란 나를 낮추고 주위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다. 겸허한 자세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자신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다. 당대에 세계적인 부호로 성장한 파나소닉의 창업자이자 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자신의 인생에서 세 가지를 존중하며 감사했다고 한다. 첫 번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돈의 귀중함을 알고 절약하며 이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어려서 몸이 약했던 것을 감사했다. 그래서 일찍이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아 평생 꾸준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고통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것에 감사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 인간관계의 유연함을 얻을 수 있었다. 열악한 자기 자신의 여건과 상황이었으나 그것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이를 극복하였다. 자기 존중과 감사 없이 화합과 화평이 유도되겠는가?

넷째, 자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어진 일을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촛불이 자기 자신을 다 살라 형체도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빛을 밝히듯이 자기 최선을 다할 때 화합과 화평이 유도될 것이다.

다섯째, 자기 최고를 향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최고 비전을 지향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습이 모두 다르듯 우리 자신이 지향하는 비전도 다를 것이다. 자연 속에 소나무는 솔향기와 솔방울을, 진달래는 진분홍 진달래꽃을, 민들레는 솜방망이꽃을, 뿌리내린 곳이 아무리 척박하지만 그들 각자가 피울 수 있는 최고의 꽃을 피우듯 최고를 향해 최고를 거둬야 할 때 화합과 화평이 유도될 것이다.

이렇게 21세기 우리 사회와 세계가 갈망하며 우리 대학이 육성하고자 하는 인물은 우리 자신과 사회에 화합과 화평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기를 존중하며, 자기 최선과 자기 최고 비전을 실천하는 데 가슴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화합과 화평을 유도하는 열정의 소유자, '아름다운 리더'야말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물이며 우리가 대학교육에서 양성하여야 하는 인물인 것이다. **대학교육**